<h1>나 혼자만 레벨업-39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zd5a1ab8301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9화</p>  
<p>안상민은 말문이 막혀 왔다.</p>  
<p>C급 게이트에서 건질 수 있는 수입은 2억 정도가 최대다.</p>  
<p>2억 5천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었다.</p>  
<p>"원래는 7천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1억까지 올리니까 이놈들이 공략 허가권을 2억5천에 사 가더라고요."</p>  
<p>백호 길드에서 C급 게이트 예약에 쓸 수 있는 돈은 1억까지가 한계였다.</p>  
<p>이 정도면 현기철이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.</p>  
<p>'이 새끼들 정체가 뭐야?'</p>  
<p>타닥타닥.</p>  
<p>안상민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.</p>  
<p>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다.</p>  
<p>현기철의 말대로 특정 팀이 이 주변의 모든 C급 게이트 공략 허가권을 말도 안 되는 속도로,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들이고 있었다.</p>  
<p>"뭐야, 이 미친놈들은...?"</p>  
<p>이 주변은 백호의 관할 구역.</p>  
<p>처음엔 잠깐 다른 길드의 방해 공작인가 싶었다.</p>  
<p>'아니야. 그럴 리가 없지.'</p>  
<p>감히 백호 길드에게 이딴 식으로 대놓고 시비를 걸 간 큰 길드가 존재할리 만무했다.</p>  
<p>5대 길드 중 어느 곳이라도 백호 길드와 정면으로 맞서려면 반파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.</p>  
<p>'길드는 아니야...'</p>  
<p>그럼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?</p>  
<p>안상민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특정 공격대 대원들의 정보를 조회했다.</p>  
<p>대장 이름은 '유진호'였다.</p>  
<p>"처음 보는 이름인데?"</p>  
<p>신입들을 스카우트하는 게 안상민의 일이었다.</p>  
<p>그런 만큼 프리랜서 헌터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죄다 꿰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이 '유진호'라는 이름은 생소했다.</p>  
<p>'일단 얘는 넘어가고.'</p>  
<p>혹시 아는 헌터가 없는지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팀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확인했다.</p>  
<p>그중 딱 하나.</p>  
<p>낯익은 이름이 있었다.</p>  
<p>'성진우? 성진우? 어디서 들어 본 이름인데...'</p>  
<p>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던 안상민이 2달인가 전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던 이중 던전 사건을 떠올렸다. 그때 협회를 도운 곳이 바로 이곳 백호 길드였다.</p>  
<p>"기철아, 두 달 전에 우리 애들이 출동했던 이중 던전 사건 기억하냐?"</p>  
<p>"네, 기억하죠. 그때 가 보니까 마수는 없고 생존자만 하나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습니까."</p>  
<p>"그 생존자 이름이 뭐였지?"</p>  
<p>현기철은 머리가 좋다.</p>  
<p>특별히 남들에 비해 영리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억력 하나만큼은 정말 기똥차게 좋았다.</p>  
<p>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현기철이 바로 말했다.</p>  
<p>"E급 헌터 성진우요."</p>  
<p>'역시!'</p>  
<p>설마 했었는데 맞았다.</p>  
<p>안상민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.</p>  
<p>분명 뭔가가 있다.</p>  
<p>이런 경우에서 발동하는 자신의 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.</p>  
<p>안상민은 직원들에게 소리쳤다.</p>  
<p>"다들 하던 일 멈추고 D급 헌터 유진호, E급 헌터 성진우 이 두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싹 다 긁어 와! 지금 당장!"</p>  
<p>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직원들의 대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. 엘리트가 괜히 엘리트일까?</p>  
<p>보고들이 속속 들어왔다.</p>  
<p>사실 유진호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.</p>  
<p>유진건설 회장 유명한의 차남이라는 배경만 빼면 평범한 수준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성진우는 달랐다.</p>  
<p>"이중 던전 때부터 지금까지 세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전부 무사히 빠졌나왔네?"</p>  
<p>안상민의 말을 현기철이 받았다.</p>  
<p>"그것도 E급 헌터가 말이죠."</p>  
<p>성진우와 유진호가 만난 것은 유진호의 첫 번째 레이드 때. 거기서 둘만 살아 나왔다.</p>  
<p>그리고 그 둘이 지금 팀을 이뤄서 하루에 두세 개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던전을 클리어해 대고 있다.</p>  
<p>"이거 냄새가 나는데..."</p>  
<p>"뭘 하고 있는 걸까요?"</p>  
<p>"글쎄... 가만, 그러고 보니 최근 유명한 회장이 S급 헌터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?"</p>  
<p>"그런 소문이 있긴 하죠."</p>  
<p>"유진호는 그 유명한 회장의 아들이고..."</p>  
<p>유명한이 길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.</p>  
<p>업계에 도는 극비 정보였다.</p>  
<p>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유진호가 벌이는 기행도 그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터.</p>  
<p>"설마...!"</p>  
<p>안상민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다.</p>  
<p>그러면 말이 된다!</p>  
<p>달라진 상사의 눈빛에 현기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안상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이 자식... 재각성 헌터야!"</p>  
<p>"재각성 헌터요?"</p>  
<p>현기철이 토끼 눈을 했다.</p>  
<p>안상민은 장담했다.</p>  
<p>"그래."</p>  
<p>E급 헌터는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다.</p>  
<p>사고가 터지면 일단 죽는다고 보면 된다.</p>  
<p>하지만 성진우는 최근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죽는 대형 사고들 속에서도 매번 무사히 빠져나왔다.</p>  
<p>'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. 하지만.'</p>  
<p>하지만 이 세 번째 사고.</p>  
<p>감시과 헌터인 강태식이 문제를 일으켰던 때는 경우가 좀 다르다.</p>  
<p>기록에는 C급 마법사와 B급 힐러가 힘을 합쳐 강태식을 막았다고 되어있었다.</p>  
<p>'말도 안 되는 소리. 감시과들은 같은 헌터들과 싸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야.'</p>  
<p>강태식이 바보가 아니라면 가장 등급이 높고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B급 힐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려고 들었을 거다.</p>  
<p>'그걸 C급 마법 계열 헌터가 혼자서 막았다고?'</p>  
<p>마법 계열 헌터는 전투 계열, 그중에서도 '암살'이 특기인 헌터들에게 취약했다.</p>  
<p>강태식이 방심해서 B급 힐러의 존재를 무시했다면 모르겠지만... 3년 경력의 감시과 헌터가 그런 실수를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.</p>  
<p>'그날 강태식을 막은 건 C급 송치열이 아니라 같이 있던 누군가다.'</p>  
<p>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했다.</p>  
<p>성진우는 재각성으로 상급 헌터 수준의 능력을 갖게 됐다.</p>  
<p>유진호는 우연히 참가한 레이드에서 그런 성진우의 실력을 보고 아버지가 만드는 길드에 그를 넣으려고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있다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.</p>  
<p>'이건 빅뉴스야.'</p>  
<p>성진우가 진짜 재각성 헌터라면 아직 그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유진호를 비롯한 몇 사람뿐.</p>  
<p>유명한이 어떤 사람인데 어중이떠중이를 받으려 하진 않을 거다.</p>  
<p>그것도 길드 창립 멤버에.</p>  
<p>그 유명한이 점찍어 둔 인재를 낚아챌 수 있는 좋은 찬스였다.</p>  
<p>'B급 강태식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의 실력은 최소한 B급 이상!'</p>  
<p>다른 길드, 특히 유명한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데려오는 게 우선이었다.</p>  
<p>등급 재심사 후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테니.</p>  
<p>만약 성진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자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다.</p>  
<p>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재각성 헌터들은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 마련이었다.</p>  
<p>그건 향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광고 효과가 된다.</p>  
<p>이래저래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.</p>  
<p>'벌써 유명한과 계약을 맺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...'</p>  
<p>그럴 가능성은 낮았다.</p>  
<p>C급 던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.</p>  
<p>'확정된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.'</p>  
<p>그건 아직 백호 길드에도 기회가 있다는 소리기도 했다.</p>  
<p>'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'</p>  
<p>안상민은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외투를 입었다.</p>  
<p>"기철아, 가자."</p>  
<p>자신의 오른팔을 대동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.</p>  
<p>안상민이 현기철에게만 특히 엄하게 구는 것은 자기 뒤를 맡길 만한 인물이 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였다.</p>  
<p>현기철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예?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, 과장님?"</p>  
<p>"어디긴. 신입 스카우트 하러지."</p>  
<p>"신입을 데려오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?"</p>  
<p>"왜? 그럼 안 되냐?"</p>  
<p>한마디 쏘아붙인 안상민이 빠른 걸음으로 나가 버리자 현기철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쫓아나갔다.</p>  
<p>'신기한 일이네...'</p>  
<p>안상민이 직접 영입에 나선 건, 그가 2년 전 과장을 달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.</p>  
<p>7. 대박의 예감</p>  
<p>오늘 유진호 팀이 계약한 던전은 모두 두 곳.</p>  
<p>두 게이트 간의 거리가 제법 멀었다.</p>  
<p>안상민과 현기철은 추측이 맞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, 각각 게이트 주변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유진호 팀이 나타나길 기다렸다.</p>  
<p>'아직 쌀쌀하구먼.'</p>  
<p>안상민은 근처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왔다.</p>  
<p>유진호 팀을 기다린 지 1시간째.</p>  
<p>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루함보다 기대감이 앞섰다. 간만에 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'내 감이 맞다면 오랜만에 나타난 대형 신인이다. 그것도 특급!'</p>  
<p>안상민은 젊은 나이에 그 누구보다 빨리 과장을 달았다.</p>  
<p>모두 감의 힘이었다. 백호 길드가 대형 길드로 발돋움한 데는 그의 기여가 컸다. 그리고 그 감이 말하고 있었다.</p>  
<p>성진우가 백호 길드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.</p>  
<p>'누가 들으면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.'</p>  
<p>아직 성진우는 공식적으로 E급 헌터에 불과하니까.</p>  
<p>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.</p>  
<p>그랬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다.</p>  
<p>그렇게 매 같은 눈으로 게이트를 주시하고 있을 때.</p>  
<p>뚜르르. 뚜르르.</p>  
<p>현기철에게서 연락이 왔다.</p>  
<p>"어, 기철아."</p>  
<p>-과장님, 지금 막 유진호 팀이 도착했습니다.</p>  
<p>"그래. 흥분하지 말고 잘 보고 있다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해."</p>  
<p>-알겠습니다, 과장님. 어? 어? 과, 과장님!</p>  
<p>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.</p>  
<p>'이 바보가 설마 들킨 건가?'</p>  
<p>안상민의 마음도 급해졌다.</p>  
<p>"무슨 일이야? 말을 해, 말을."</p>  
<p>-과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!</p>  
<p>"뭐?"</p>  
<p>안상민의 심장이 빨라졌다.</p>  
<p>-게이트 안에 유진호, 성진우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.</p>  
<p>"그래야지. 성진우를 테스트하는 거니까!"</p>  
<p>역시나!</p>  
<p>추측이 맞았다.</p>  
<p>이럴 때 자신의 감각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.</p>  
<p>'좋았어!'</p>  
<p>안상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'너희가 반신반의할 때 우리는 움직인다. 성진우는 우리 백호 길드에 들어오게 될 거다.'</p>  
<p>백호 길드에는 제2관리과와 이 안상민이 있으니까.</p>  
<p>안상민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현기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.</p>  
<p>-전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제가 그리로 갈까요?</p>  
<p>"아니, 좀 더 지켜봐."</p>  
<p>-예? 과장님 말씀은 확인됐지 않습니까?</p>  
<p>"공략 시간이 궁금해서 그래. C급 던전을 몇 시간 만에 클리어할지."</p>  
<p>-A급 헌터도 C급 던전에 혼자 들어가면 2시간 이상 걸리잖습니까?</p>  
<p>"그래서 못하겠다는 거냐?"</p>  
<p>-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혹시나 과장님께서 적적해하실까 봐 걱정돼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.</p>  
<p>빛보다 빠른 태세 변환.</p>  
<p>이래서 안상민은 현기철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.</p>  
<p>"내 걱정은 말고 그 두 사람이 언제 나오는지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어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